

만신창이 경선 후유증 불가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오늘 오후 결판
전남지사 경선 불발 단독 후보 가능성

새로운 '변화와 희망'이 기대됐던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막판까지 이어진 탈·불법 선거전으로 '후악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치열한 경선전이 전개되면서 각종 고소·고발과 수사의뢰가 줄을 이었다는 점에서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격차가 크지 않을 경우, 경선 불복 사태는 물론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재경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하루 앞둔 9일 정동채, 이용성, 강은태 예비후보는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일 오전 민주당 전당원 전화면접 여론조사 시점에 맞춰 실시된 여론조사 기관의 ARS 여론조사로 인해 지지 당원들이 이탈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중앙당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는 "중앙당의 여론조사는 공정성이 훼손됐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이 후보와 강 후보도 광주지검의 수사 결과 등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경우에 따라 경선 불복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전당원 여론조사 마감일인 9일에도 각종 불·탈법 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렸다.

전당원 여론조사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후보 측의 불·탈법 여론조사 참여 독려 메시지가 난무한 것. 또한, 전화방 등으로 의심되는 곳에서 민주당 여론조사를 가장, 상대 후보의 지지 당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탈을 유도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각 후보 캠프에서 현·지역·혈연 등을 총동원, 시민배심원들을 상당수 확보했다는 설도 떠돌고 있다.

이처럼 경선 막판, 각종 탈·불법 선거 운동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경선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10일 최종 경선에서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격차가 미세할 경우, 2위 후보가 ARS 여론조사에 의한 지지율 감소와 탈법법 선거 운동 등을 이유로 경선 불복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또한, 그동안 탈·불법 선거 운동이 심각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1위 후보의 자격이 박탈되고 재경선이 실시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각 후보 진영에서의 수사 의뢰와 고소고발로 인해 경선 이후에도 여진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단수후보 등록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최고위원회가 후보 추가 등록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조영의 대변인은 이날 "제11차 전체회의 결과, 전남도지사 경선후보로 박준영 후보자 1인만 최종 등록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원칙적으로는 추가 등록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하지만 "최고위원회 의가 박준영 후보의 동의를 얻어 후보 추가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해 추가 등록 가능성이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을 하루 앞둔 9일 민주당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0일 열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선출 시민공천배심원 경선대회'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를 시사했다.

따라서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실시 여부는 오는 12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이석형 예비후보와 주승용 의원은 지난 7일과 8일 "특정 후보에 편향적인 여론조사 방식의 시장과 기초단체장 경선 이후 광역단체장 경선 시행 등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후보 등록을 두 차례 유보했다. /임동욱·박지경기자 tu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합의안 부결

사측 191명 해고...워크아웃 전면 중단

금호타이어가 1960년 창사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노조 조합원들이 일단협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노조는 파업으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어서 금호타이어 사태가 또 다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9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조가 지난 7~8일 이틀동안 전체 조합원 3천5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일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투표인원 3천460명 중 일단협에선 1천946명(56.24%), 단협에선 1천975명(57.08%)이 반대해 합의안이 부결됐다.

사측은 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9일 오전 경영상 정리해고 대상자 193명 가운데 명예퇴직을 신청한 2명을 제외한 191명에게 '10일 새벽 0시부터 해고한다'고 개별 통보했다. 또 도

급화(아웃소싱) 대상자인 1천6명에 대해서는 1개월을 유보해 '5월10일 새벽 0시부터 해고한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 이날 오후 3시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조는 해고 철회와 재협상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더 이상 내줄 카드가 없다"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맞서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사태가 악화되자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워크아웃을 전면 중단했다. 채권단은 이날 금호타이어에 대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할 예정이었으나 합의안이 부결되자 취소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동의서가 없으면 지원은 한 푼도 없다"며 1천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과 3천만 달러 한도의 신용장 개설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이 관계자는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달 20일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손을 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합의안 부결로 자금 수혈과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된 금호타이어는 그동안 국내에서 조달하던 원재료 수급마저 어렵게 돼 공장 가동이 언제 중단될지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어음) 만기가 12일부터 줄줄이 도래할 예정이어서 협력업체들의 연체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이날 노조 대의원대회 도중 합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놓고 집행부와 강경파가 충돌해 4명이 다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명숙 前총리 무죄 선고

법원 "곽영욱 5만달러 진술 신빙성 의심"

검찰 항소기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5만달러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곽영욱의 뇌물공여 진술은 전후의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이 부족하고, 그의 인간됨과 진술로 연계 되는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곽영욱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해 한명숙이 곽영욱으로부터 5만달러를 수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 직후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곽씨의 진술은 변함없이 유지됐는데도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쟁점을 ▲5만달러 수수 ▲공기업 사장 취임에 관한 청

탁 및 한 전 총리의 지원 ▲5만달러를 준 사실이 인정되면 청탁에 따른 대가성 여부 등으로 간주된 뒤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익교실립 56주년 (1954-2010)

민음, 소망, 사랑으로
기쁨으로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光州日報과 함께
행복한 주말을

교육비리 소환 앞둔 업자 자살 ▶ 3면 백화점 멀티숍 바람 ▶ 4면 황사철 자동차 관리 ▶ 5면 Books ▶ 8·9면 독자와 함께 ▶ 13면 최경주·양용은 공동 2위 ▶ 14면

예술 공나우들의 힘으로

호남 예술제

전통의 통합예술제전-권국대회 2010. 4. 28(수) ~ 5. 28(금)

호남문화재단 주최, 호남문화재단 후원, 호남문화재단 주관, 호남문화재단 후원, 호남문화재단 후원

시내에서 무료로 관람 가능

문의: 062-222-8111

http://www.hnca.or.kr